부모용

독후활동지

엄마가 된 빨간모자





엄마가 된 빨간모자

한아영 글그림/값 16,800원

한아영 : 홍익대학교에서 디자인을 전공한 후 미술 교습소를 운영하며
다양한 연령대의 아이들과 양육자들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있다.
아이들이 세상을 주체적으로 인식하는 방식과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시선의 간극,
성장의 의미에 관심을 가지고 그림책 작업을 이어가고 있다.

#빨간모자 #패러디그림책 #육아불안 #부모의성장 #아이의독립 #모녀그림책 #창작그림책 #육아그림책 #부모교육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아이를 믿는 마음 사이에서 아이를 키우다 보면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고, 위험한 것은 미리 막아 주고 싶어집니다. 빨간모자도 그랬습니다. 어린 시절 숲에서 늑대를 만났던 빨간모자는 딸 초록모자가 숲을 혼자 지나가자 자신이 겪었던 위험이 아이에게도 일어날까 걱정합니다. 그래서 가시덤불을 미리 치우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주고, 늑대에게 도시락까지 나누어 줍니다.
그런데 초록모자가 만난 숲은 엄마가 생각했던 숲과 달랐습니다.

책을 읽은 뒤 잠시 멈추어 빨간모자의 마음과 나의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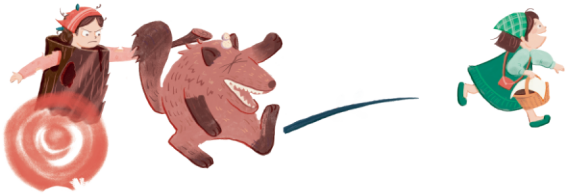
1. 나는 무엇을 가장 걱정하나요?

아이와 관련해 내가 자주 걱정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 ☐ 다칠까 봐
- ☐ 실패할까 봐
- ☐ 다른 사람에게 상처받을까 봐
- ☐ 잘못된 선택을 할까 봐
- ☐ 뒤처질까 봐
- ☐ 혼자 해결하지 못할까 봐
- ☐ 기타

내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2. 그 걱정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빨간모자는 자신의 어린 시절 경험 때문에 숲을 위험한 곳으로 기억합니다.
나의 걱정에도 나만의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건 위험해."라고 말했던 일 가운데 나의 경험 때문에 더 걱정했던 일이 있었나요?

그때의 나에게는 어떤 경험이나 기억이 있었을까요?

3. 아이가 보는 세상은 나와 어떻게 다른가요?

빨간모자에게 숲은 위험한 곳이었지만 초록모자에게 숲은 다람쥐와 새를 만나고 물놀이도 할 수 있는 재미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나와 다르게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처음에는 걱정스러웠지만 아이에게는 즐겁거나 의미 있는 경험이었던 일이 있었나요?

4. 내가 대신 해 주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빨간모자는 초록모자가 안전하게 지나가도록 가시덤불을 치우고 징검다리를 만들어 줍니다.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가 대신 해 주는 일은 많습니다.

요즘 내가 아이 대신 해주고 있는 일은 무엇인가요? 그 일을 아이가 직접 해본다면 어떨까요?

'도와주는 것'과 '대신 해주는 것'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5. 아이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아이에게는 때로 보호가 필요하고, 때로는 스스로 해볼 기회가 필요합니다.

다음 중 지금 우리 아이에게 조금 더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 내가 먼저 도와주는 것
- ☐ 혼자 해 볼 시간을 주는 것
- ☐ 실패해도 기다려 주는 것
- ☐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
- ☐ 위험한 상황에서 지켜보는 것
- ☐ 아이의 이야기를 들어 주는 것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인가요?

6. 아이의 '다른 길'을 받아들이고 있나요?

초록모자는 엄마가 만들어 놓은 징검다리 대신 물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부모가 생각한 방법과 아이가 선택한 방법이 다를 때가 있습니다.

최근 아이가 나와 다른 방법을 선택했던 일이 있었나요?

나는 그때 어떻게 반응했나요?

지금 다시 생각한다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 주고 싶나요?

7. 늑대를 다시 바라본다면

빨간모자에게 늑대는 두려운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초록모자에게 늑대는 친구가 될 수도 있는 존재였습니다. 물론 현실에서는 아이에게 위험한 상황을 분명하게 알려 주고 지켜 주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를 보호하는 것'과 '아이를 믿는 것'은 어떻게 함께할 수 있을까요?



8. 아이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

책을 읽고 난 뒤, 오늘의 아이에게 꼭 해 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엄마(아빠)는 네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하기를 바래." 또는

"엄마(아빠)는 네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할 때 기다려 줄게."

마지막으로,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이의 힘을 믿어 줄 수도 있습니다.
빨간모자는 딸을 지키기 위해 아이보다 먼저 숲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숲을 만나고 있다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됩니다.



우리 아이에게 내가 꼭 지켜 주어야 할 것은 무엇이고, 아이에게 맡겨도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아이와 함께 한 가지씩 이야기해 보세요.

내가 지켜 줄 것

아이에게 맡겨 볼 것

오늘 아이에게 해 주고 싶은 한마디

